

# 李 “당원이 주인”·朴 “방탄 당헌 반대”·姜 “더 많은 대선주자”

이재명 “진정한 민주당 내가 만들겠다”  
박용진 “개정 땀 사당화 돼…尹 웃음꽃”  
강훈식 “계파 두루 연결해 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 2일차를 맞은 7일 제주를 찾은 당권주자 3인방은 입을 모아 자신이 차기 당대표로 적임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반대’, 강훈식 후보는 ‘더 많은 대선후보군 양성’을 각각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제주 ‘난타 호텔’에서 열린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시에 러브콜을 보냈다. 97세대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방탄’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 당원 청원을 비판하며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고, 강훈식 후보는 자신이 여러 대선후보를 세울 수 있다며 ‘탈계파성’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

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이 3무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주를 억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민생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은 적극 협력하겠지만, 집권여당의 퇴행과 독주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전했다.

박용진 후보는 “개인의 위함이 당의 위험

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제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특히나 이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다른 패배의 길로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의 지난 인선 계약을 보권선거 출마 논란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의원은 왜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인가.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 당의 어느 리더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후보는 “다른 두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이다. 자기 자신의 더 확고한 위치 더 큰 존재감에 마음이 기우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다. 경쟁상대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강훈식이 오직 당 대표로서 더 많은



대선후보군을 만들겠다”고 어필했다.

강 후보는 “계파와 세대가 얽힌 현실이라면 관건은 연결, 두루 연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당 대표는 강훈식뿐”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당권 경쟁자인 이재명,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소신과 박용진이 소외되지 않게 만들겠다. 강훈식은 함께 싸우고

더 넓게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민심을 향한 러브콜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길을 이어받아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강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도 육지 중심적 사고, 수도권 중심의 의사결정에 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승호기자

##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출범…민주당 시당위원장 출마

“권리당원 적극 참여로 개혁과 혁신”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정치인들의 개혁을 요구하는 평당원 중심의 정치개혁 단체가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공식출범했다.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표방한 이 단체는 조만간 치러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어서 국회의원들과 평당원 간 경선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건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가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

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대학교수와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석했다고 개혁연대 측은 밝혔다.

개혁연대는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에 실망하게 된 지역 활동가들과 정당인들이 민주당 개혁을 위해 뜻을 같이했다”고 출범 배경을 밝힌 뒤 “지역과 시민사회 비판을 무시하고 당원을 배제해온 정당 운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회원을 모

집하고 권리당원으로 참여시켜 개혁과 혁신의 기록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강외와 소모임, 정치신인과 지역정책 발굴 등을 통해 최대 2만 명의 권리당원을 최대한 모집하고, 올 연말에는 총회도 열 예정이다.

조만간 치러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공모에도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당원 중심 개혁’의 첫 행보로, 현재까지 2명의 평당원이 위원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개혁연대 측은 설명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병훈 의원(동남을)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상태여서, 개혁연대 측 후보가 출마할 경우 경선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8~9일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1일 후보자를 접수한 뒤 필요할 경우 당내 선관위가 추후 경선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 간 경선이나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돼 왔다.

최이슬기자

## 홍준표, 이준석에 “자중하고 후일 기약”

“더이상 당 혼란케 하면 분탕질에 불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하라”며 ‘경고성’ 조언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송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장부는 나이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여태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극언으로 대응한 건 크나큰 잘못”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직접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며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잠행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률 자문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과 함께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